

원자력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홍보

노 윤 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20세기가 저무는 1999년 말, 수만명의 군중이 시애틀에서 개최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중지시키기 위해 강력한 항의 소동을 벌렸다. 철강노조와 자동차노조를 비롯하여 각종 소비자 단체, 자연 환경 보호 단체,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까지 포함된 이들의 거센 움직임은 오늘날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류 역사상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소비·금융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큰 발전적 변화를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에게는 삶의 질적 향상을 실현시키겠다고 했던 최초의 목적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빈곤과 고통을 주고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황폐화 현상은 다국적 거대 기업은 물론 WTO·IMF·WB(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와 강대 국가들이 세계화란 미명하에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화를 반대하는 움직임,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 from below)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은 위로부터의 세계화로 초래된 빈곤·압제·전쟁·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매

우 희망적이다. 이 운동은 오직 세계를 보다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이 가져 온 결실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상 회의가 지지 부진하자 환경 단체들이 벌떼처럼 회의장을 둘러싸고 화석 연료의 사용량 감축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 거대 기업들이 남미의 아마존 삼림과 인도의 나르마다 계곡을 개발할 목적으로 WB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자 했을 때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후진국의 빈곤 퇴치 운동으로는 1980년대에 빈곤국의 부채가 크게 부각되자 이를 경감 내지는 탕감시키기 위해 IMF와 WB의 가혹한 구조 조정 계획을 수정케 하였고, 아프리카 빈곤국에 대해서는 AIDS 치료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는데 이는 특허와 관련된 WTO의 어떤 규정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노력을 막을 수 없다는 신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다국적 거대 기업의 횡포와 국제 기구의 오만한 정책에 대응하여 이들 NGO가 전개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에는 1990년대에 노동 조건이 열악한 외국 공장에서 제조된 나이키 제품의 불매 운동, 후진국에 대한 네슬레의 분유 판매가 저렴화 운동, 몬산도에 대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협약 등이 있다.

정부가 앞에 서서 입지 선정을 하지 말고 원전 사업자가 책임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이 원자력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 단체들도 반원자력 성향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과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경인도 우리 사회에는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후보지 주민에 대한 원자력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
 아래로부터의 대 주민 홍보 운동을 전개해 보자.

또한 국제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1970년대에는 빈곤 국가들의 협의 기구인 G-77을 결성케한 바 있으며, 비록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IMF·WB 등 경제 정책의 주체를 UN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학자인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그의 저서인 「권력의 근원」에서 국가 권력의 장악만이 대규모 사회 변화의 유일한 수단인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란 혁명이나 개혁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지배 구조의 내부나 그 주변의 '구석'이나 '틈새'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9세기의 노동 사회 운동과 20세기의 여성 해방 및 환경 운동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것은 처음에는 구석진 주변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웃과 연계를 맺으며 때에 따라서는 우회적 공격을 가하는 기법(전술)을 채택한 것이지 혁명이나 개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삶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으로 가능하다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처분장 입지 선정이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후보지 주민들과의 갈등만 조장해 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해법은 올바른 원인 규명에 있지 않을까?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신뢰성을 잃은 것이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정부가 주도해 온 국책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예컨대, 방폐물 처분장 후보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변경했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부안군 위도의 경우에도 주민 설득 과정에서 보인 성숙치 못한 교섭 등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사업 추진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이 많은 역기능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처분장 사업도 위에서 무리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부가 앞에 서서 입지 선정을 하지 말고 원전 사업자가 책임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이 원자력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 단체들도 반원자력 성향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과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경인도 우리 사회에는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후보지 주민에 대한 원자력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

아래로부터의 대 주민 홍보 운동을 전개해 보자. ☉